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1

우리는 글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글 읽기의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다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면서요.
이 단원에서는 내가 직접 글을 고르고, 그 글을
읽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해 볼 것입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 볼 것입니다.

대단원 학습 목표

읽기 — 자신의 독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을 수 있다.

문학 —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단원 한눈에 보기

(1) 점검·조정하며 읽기

국수가 잔치 음식이 된 까닭

· 읽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는 방법 이해하기
·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

+ 한 권 읽기

(2) 삶을 담은 문학

홍길동전 – 허균

·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 감상하기

역량 키우기

옛이야기 다시 쓰기



나의 경험 돌아보고 학습 계획 세우기

- 내가 고른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 □ | 없다 □).
- 소설을 읽다가 소설 속 사회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 없다 □).

이 단원에서 나는

(1) 점검·조정하며 읽기

학습 목표◆
자신의 독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을 수 있다.

생각 열기

책을 읽은 경험을 떠올려 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말해 보자.



국수가

잔치

음식이

된

까닭

바탕 다지기

다음은 나연이가 자신이 고른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읽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는 방법에 주목하며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은 나연이가 글을 고르고, 자신이 고른 글을 읽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살펴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① **나연이가 글을 고를 때 고려한 점을 모두 골라 ∨ 표시를 해 보자.**

-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하였다. ☐
-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였다. ☐
- 글을 읽을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하였다. ☐
- 표지 그림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고려하였다. ☐
- 자신이 읽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고려하였다. ☐
- 전문가의 평가가 어떠한지 고려하였다. ☐



글을 읽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

㉠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라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역사와, 음식과 관련된 문화를 다루는 글일 것 같아.

㉡ 표지에 생선, 국자, 김치, 면이 그려져 있네. 생선, 김치, 면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나 다양한 국에 얽힌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아.

이번엔 목차를 살펴보자. 우아,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다루고 있다니 흥미로운걸? 3장에 내가 좋아하는 국수에 관한 글이 있네. 여기부터 읽어 봐야겠다.

목차

면류

3장. 쫄깃한 면발의 매력

잔치국수 국수가 잔치 음식이 된 까닭
평양냉면 밍밍한 듯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찬 국수
함흥냉면 쇠심줄보다 질겨야 함흥냉면
우무냉국 임금님의 여름 음식
수제비 옛날 양반의 고급 음식

㉢ 마침 지난 주말에 잔치국수를 먹었어. 맑은 국물에 가늘고 긴 면이 담겨 있었지.

㉣ 예전에 먹던 국수도 오늘날에 먹는 것과 비슷한 형태였을까?

2 ㉠~㉣은 나연이가 한 읽기 전 활동이다. 제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호를 써 보자.

글의 내용 예측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지식 떠올리기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		

2. 다음은 나연이가 읽기 중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살펴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국수가 잔치 음식이 된 까닭

윤덕노

분식집이나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잔치국수이다. 잔치국수는 이름 그대로 잔칫날 먹던 국수이다. 그것도 예전에는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는 환갑잔치나 결혼 잔치 혹은 아이 돌잔치 때 준비하던 특별한 음식이다.

잔치국수는 역사가 깊은 음식이다. 최초의 잔치국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음식은 6세기 때 처음 문헌에 보인다. 중국 북제의 황제 고양이 아들을 낳은 것을 기념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다. 북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북사』에서는 이 잔치의 이름을 탕병연(湯餠宴)이라고 기록했다. 탕병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으로 국수의 *원형이 되는 음식이다. 다만 지금처럼 면발이 기다란 국수가 아니라 짧게 끊어진 칼국수나 수제비에 가까웠을 것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수 면발을 길게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 **원형**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❶ 내가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인 잔치국수의 역사를 다루고 있네.

❷ 내가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이 제시되어 있네. 예전에 먹던 국수는 면발이 기다랗지 않았구나.

이후에도 황제가 *고관대작의 생일잔치 때 탕병, 즉 국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와 『자치통감』에도 현종이 생일날 국수를 먹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처럼 국수는 오래전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해 온 음식이다.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이 잔칫날 특별히 국수를 먹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 현종의 생일잔치에 국수를 먹은 것에도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국수를 장수를 비는 음식으로 여기게 된 것은 당나라 때부터인데, 여기에도 까닭과 유래가 있다. 남송 때의 학자 주익은 『의각료잡기』라는 책에 당나라 사람들은 생일에 다양한 국수를 먹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보고 장수를 소원하는 음식이라서 장수면(長壽麵)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북송 때의 사람 마영경도 『나진자』라는 책에서 당나라 시인 유영경의 시를 인용하며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으며 하늘의 기린만큼 오래 살기를 기원하노라."라고 읊었다. 당나라 때부터 사람들이 국수를 먹으며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는 증거이다.

* **고관대작** 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 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만수무강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3 글쓴이가 여러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져온 의도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거야.

잠깐, 내가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고 있나? 나는 음식의 역사나 음식과 관련된 문화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읽는 건데, 읽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지.

4 하늘의 기린이라니? 내가 아는 기린이 아닌가 봐. 사전을 찾아보자.

기린[2] 「명사」 「2」 『민속』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 몸은 사슴 같고 꼬리는 소 같고, 발굽과 갈기는 말과 같으며 빛깔은 오색이라고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지 눈이 아파서 글을 읽기 힘들어. 밝은 곳에 가서 마저 읽어야겠어.

밀을 곱게 빻는 것과 국수를 길게 뽑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이 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네. 뒷부분을 좀 더 읽어 보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5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생일날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렇다면 국수에다 오래 살게 해 달라는 소원을 담아서 먹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국수의 면발에 있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다란 국수 면발같이 오래 살게 해 달라는 미신적인 소망이 아닌 다른 까닭 때문이다.

국수의 면발이 길어진 것은 당나라 무렵이다. *실크 로드가 번창하면서 *서역으로부터 *수차를 이용한 *제분 기술이 도입되어 밀을 곱게 빻을 수 있게 되면서 밀가루 반죽으로 기다란 국수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평소 수수나 기장처럼 거친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고운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게 되니 당연히 오래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생일날 장수를 기원하며 국수를 먹는다. 이른바 생일에 먹는 장수면이다.



* **실크 로드**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여 중국과 서아시아·지중해 연안 지방을 연결하였던 고대의 무역로.
서역 중국의 서쪽에 있던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수차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
제분 곡식이나 약재 등을 빻아서 가루로 만듦. 특히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일날이 아닌 잔칫날 국수를 먹었을까? 그 까닭 가운데 하나는 미역국이라는 우리 고유의 생일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까닭은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만 해도 밀가루는 진짜 가루라는 뜻의 진가루라고 부를 만큼 귀한 식재료였다. 국수는 밀가루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 어떤 음식보다 귀하고 훌륭한 음식이었기에, 회갑이나 돌잔치 같은 특별한 잔칫날 국수를 먹으며 장수의 소망을 빌고, 축하객으로 온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잔치국수지만 예전에는 정말 귀하신 몸이었다.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 **윤덕노(1958~)** 음식 문화 평론가. 지은 책으로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종횡무진 밥상 견문록』, 『과일로 읽는 세계사』 등이 있다.

6 우리 선조들이 잔칫날 국수를 먹었던 까닭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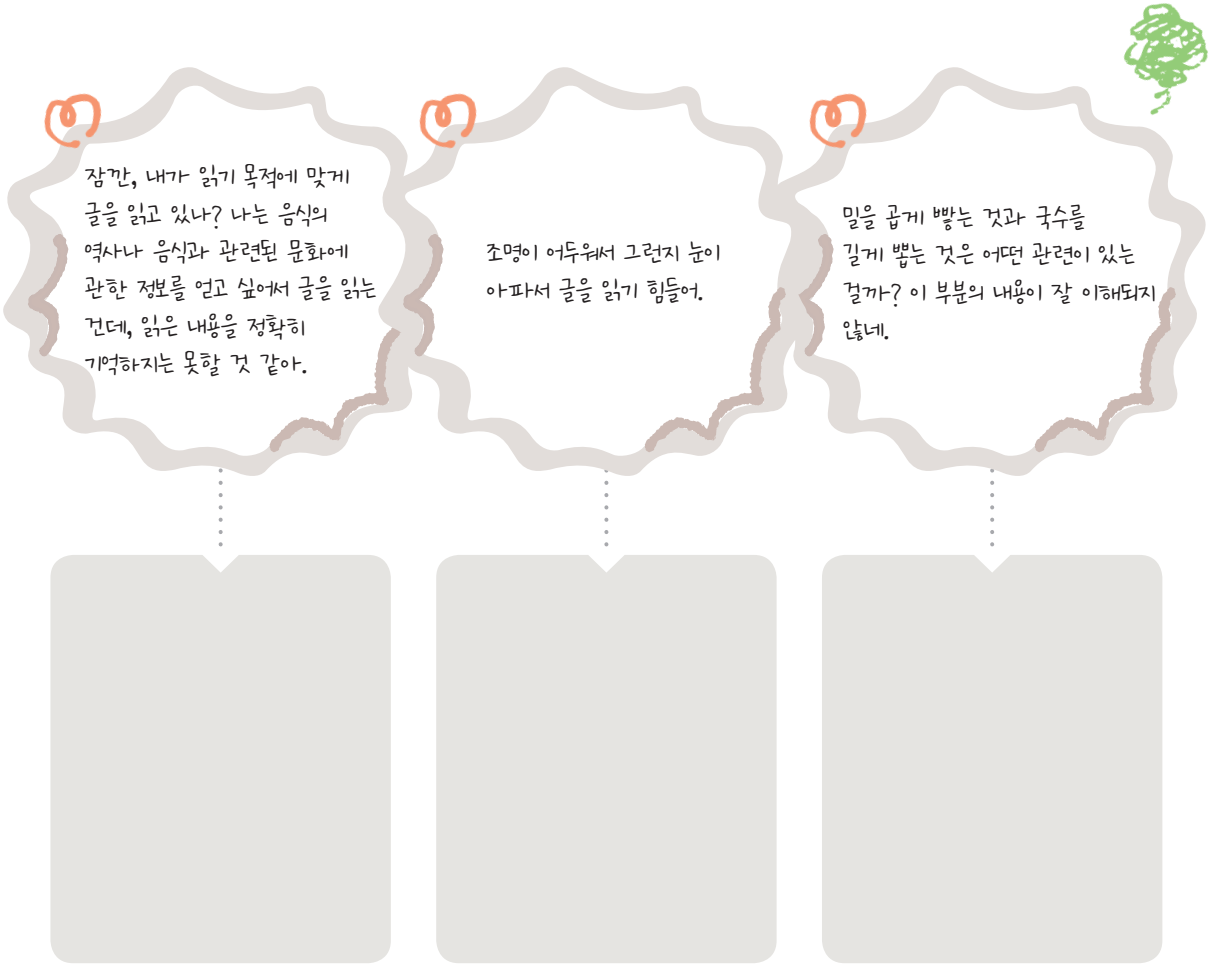
잔칫날 국수를 먹었던 까닭

- 미역국이라는 우리 고유의 생일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 밀가루가 귀하던 시절에는 국수가 귀하고 훌륭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① ❶~❻은 나연이가 한 읽기 중 활동이다. 제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호를 써 보자.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 찾기	❷
주요 내용 정리하기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하거나 사전에서 찾기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② 나연이가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적어 보자.



3. 다음은 나연이가 글을 읽은 후에 메모한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 **요약하여 정리하기**

- **처음**
  - **1문단** 잔칫날 먹던 특별한 음식이었던 국수
- **가운데**
  - **2~3문단** 오래전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해 온 음식인 국수
    - → 『북사』: 중국 북제의 황제 고양이 아들을 낳은 것을 기념하려 연 잔치인 탕병연에 관한 기록이 있음.
    - → 『신당서』, 『자치통감』: 당 현종이 생일날 국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음.
  - **4문단** 옛 사람들이 잔칫날 국수를 먹은 까닭
    - → ㉠ _____
  - **5~6문단** 국수에 오래 살게 해 달라는 소원을 담아서 먹게 된 까닭
    - → ㉡ _____
- **끝**
  - **7문단** 우리 선조들이 생일날이 아닌 잔칫날 국수를 먹었던 까닭
    - → 미역국이라는 우리 고유의 생일 음식이 있었음.
    - → 밀가루가 귀하던 시절에는 국수가 귀하고 훌륭한 음식이었음.

•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조선 시대에는 밀가루가 귀한 식재료였다.

• **더 알고 싶은 내용**

국수의 종류와 요리법

① 나연이가 정리한 것을 살펴보며 ㉠과 ㉡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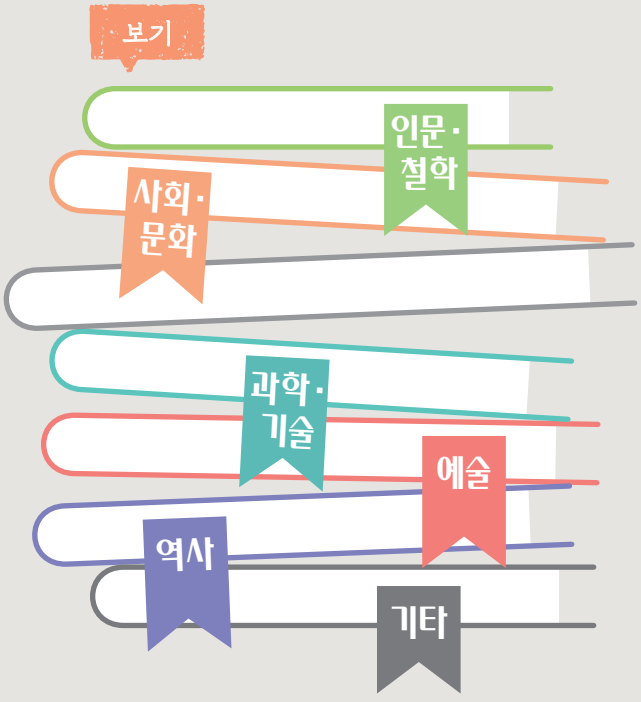
② 나연이가 한 읽기 후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전체 내용을 _____ 정리하였다.
- 새롭게 알게 된 내용, _____ 을/를 정리하였다.

내게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어요!

1. 나의 읽기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내가 읽을 책을 골라 보자.

① **[보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가지 골라 보자.**



내가 고른 분야

② **나의 읽기 상황을 정리해 보자.**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주로 언제, 어디에서 책을 읽을 것인가?	

③ ①~②번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세 권 골라 보자.



④ 다음 물음을 참고하여 ③번 활동에서 고른 책 가운데 나의 읽기 수준에 맞는 책을 한 권 골라 보자.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있나요?
- 책에 쓰인 단어의 수준이 나에게 적절한가요?
- 책의 내용이나 주제가 내가 읽기에 적절한가요?
- 책의 분량이 내가 읽기에 알맞나요?

책 제목

글쓴이 쪽수

이 책을 고른 까닭

2.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내가 고른 책을 살펴보며 읽기 전 활동을 해 보자.



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

② **책의 내용과 관련된 나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자.**

③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자.**

3. 독서 일지를 쓰며 책을 읽어 보자.

예

책 제목 ○○○ ○○ **글쓴이** ○○○

읽은 날짜 ○월 ○일 **읽은 쪽** ○~○쪽

오늘의 독서 일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책이라 오늘도 흥미롭게 읽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사전을 찾아보면서 읽으니까 점점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다. 책을 읽다가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었다. 그랬더니 전체 흐름이 잘 파악되었다. 책을 읽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고, 읽고 나면 뿌듯하다!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한 내용

-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읽었다.
-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집중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책을 읽었더니 조금 더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책 제목 **글쓴이**

읽은 날짜 **읽은 쪽**

오늘의 독서 일기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한 내용

글을 읽는 중에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 찾기, 주요 내용 정리하기,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하거나 사전에서 찾기,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등의 읽기 방법을 활용해 본다.

활동지

4.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인상 깊었던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인상 깊었던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5. 나의 읽기 과정을 돌아보며, 읽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① **다음 항목에 따라 나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보자.**

점검 항목	평가
나의 읽기 상황에 맞는 책을 선정하였는가?	☹ 😐 ☺
나의 읽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였는가?	☹ 😐 ☺
나의 읽기 목적을 떠올리며 책을 읽었는가?	☹ 😐 ☺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며 책을 읽었는가?	☹ 😐 ☺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책을 읽었는가?	☹ 😐 ☺

② 내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③ 친구들이 활용한 해결 방법 가운데 나의 읽기 활동에 반영하고 싶은 것을 그 까닭과 함께 말해 보자.

나의 읽기 활동에 반영하고 싶은 해결 방법	그 까닭

소단원 정리하기

1 읽을 글을 선정하는 방법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글을 읽을 것인지,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글의 주제나 내용, 난도나 분량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읽기 과정과 읽기 방법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 글의 내용 예측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리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 읽기 전에 만든 질문의 답 찾기 · 주요 내용 정리하기 · 모르는 단어의 뜻은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하거나 사전에서 찾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 글의 내용 요약하여 정리하기 ·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3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글을 잘 읽으려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자신의 읽기 활동, 읽기 환경 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 항목에 따라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점검 항목	평가	안내 쪽수
1. 나의 읽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할 수 있다.	☹ 😐 ☺	18, 26~27쪽
2.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 ☺	19~25, 28~30쪽
3.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 ☺	19~25, 28~31쪽

어휘력 높이기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 상자에서 찾아 묶어 보자.

음	기	돈	배	장	대
비	원	병	경	험	수
가	사	형	지	현	예
희	동	전	식	탁	측
계	날	벽	공	재	해
코	속	선	정	하	다

뜻풀이

1.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 “이 책은 역사에 관한 ○○○○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2. 미리 헤아려 짐작함. “그 선수의 기록에 관한 ○○이/가 들어맞았다.”
3. 오래도록 삶.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의 비결이다.”
4.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이 건축물은 후대 건축물의 ○○이/가 되었다.”
5.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 “그를 이달의 선수에 ○○○○.”
6.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등을 해설한 책.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에서 찾았다.”
7.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우리의 ○○대로만 된다면 좋겠다.”

(2) 삶을 담은 문학

학습 목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가, 나는 각각 1980년대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통신 수단에 주목하여, 과거와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가



나




홍길동전

바탕 다지기

다음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홍길동전

허균

줄거리 영상

[앞부분 줄거리] 조선 세종 때 *재상이었던 홍 판서는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명은 본처인 유씨 부인이 낳은 인형이고, 다른 한 명은 여종 춘섬이 낳은 길동이다.

길동이 자라 여덟 살이 되자 남달리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았다. 아들을 사랑하는 홍 판서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지만 길동의 근본이 천한 출생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홍 판서는 길동이 *호부호형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 하게 했다. 그렇다 보니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를 받아 그 한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길동이 감히 아버지와 형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어느 가을 보름 무렵이었다. 달빛이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서당에서 글을 읽던 길동이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나 맹자를 본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병법을 익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껴 차고 동서를 정벌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대장부의 통쾌한 일이리라. 이내 한 몸 어찌 이토록 쓸쓸한가.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는데

등장인물 소개 영상

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구나.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길동은 말을 마치고는 뜰에 내려와 검술을 공부했다. 마침 홍 판서가 달빛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동이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는 즉시 불러서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일어서 밤이 깊도록 잠도 자지 않고 나와 있느냐?"

길동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소인이 달빛을 좋아하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오롯이 귀함을 두었으나,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귀함이 없다고 말하는 길동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해 보자.

홍 판서는 길동이 한 말의 뜻을 짐작했으나 일부러 꾸짖었다.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길동은 홍 판서에게 절을 올리더니 말했다.

"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며 낳아서 길러 주신 은혜도 깊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평생 설워하는 바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는 것이옵니다. 어찌 저를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의 눈물이 흘러 옷을 적셨다. 홍 판서가 그 말을 다 듣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지만 만일 위로해 주면 길동의 마음이 *방자해질까 걱정되어 더 크게 꾸짖었다.

"재상가에서 태어난 천한 출생이 비단 너뿐이 아닌데 어찌 이다지 방자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다시 꺼내면 내 눈앞에서 용서치 않겠다!"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

* **재상**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호부호형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다.
천대 업신여기어 천하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함.
병법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대장인 대장이 가지던 도장.
측은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방자하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었다. 홍 판서가 물러가라고 하여 길동은 방으로 돌아왔으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길동은 본래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성품이 활달했다. 하지만 서글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 *침소에 가서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어머니와 맺은 전생의 인연이 깊어 지금 세상에서 어미와 자식 사이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끝이 없지만, 천한 몸으로 태어난 소자의 *기박한 팔자 때문에 품은 한이 깊습니다. 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천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자 더는 설움을 참지 못해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저를 염려치 마시고 귀한 몸을 잘 지키시옵소서."

길동이 집을 떠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길동의 어미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라 말했다.

"재상가에서 태어난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편협한 마음을 먹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그러자 길동이 간절히 대답했다.

"옛날에 장충의 아들인 *장길산은 천한 태생이지만 열세 살에 어머니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운봉산에 들어가 도를 닦은 뒤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는 안심하고 뒷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요즘 곡산모의 행색을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저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큰 화를 입을지 모르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떠나는 것을 염려치 마소서."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어미 춘섬 또한 슬퍼했다.

* **침소** 사람이 잠을 자는 곳.
기박하다 팔자, 운수 등이 사납고 복이 없다.
슬하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편협하다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이나 생각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
장길산 조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활동한 도적의 우두머리.
상공 재상을 높여 이르던 말.

[중략 부분 줄거리]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던 길동은 어느 날 밤, 자객의 습격을 받는다. 그 자객은 홍 판서의 첩 곡산모가 길동을 죽이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곡산모는 길동 모자를 질투하여 *관상녀와 짜고 길동을 없애려 하였다. 이에 관상녀는 홍 판서에게 길동이 왕이 될 관상으로 집안에 재앙이 될 것이라 말하고, 곡산모는 길동을 없애야 한다고 홍 판서를 재촉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곡산모는 유씨 부인과 길동의 이복형인 인형을 설득하여 길동에게 자객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자객과 관상녀는 도리어 길동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 일을 계기로 길동은 집을 나가고, 그 뒤에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 뒤로 길동은 자신의 무리를 '활빈당'이라 부르며 조선 팔도를 다녔다.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있으면 빼앗고, 매우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했다. 백성의 재물은 조금도 침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은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아 모든 부하가 그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 놓고 의논했다.

"함경 감사가 *탐관오리 짓을 하며 기름을 짜듯 착취를 일삼으니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더 이상 그대로 두고 지켜볼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나의 지휘대로 움직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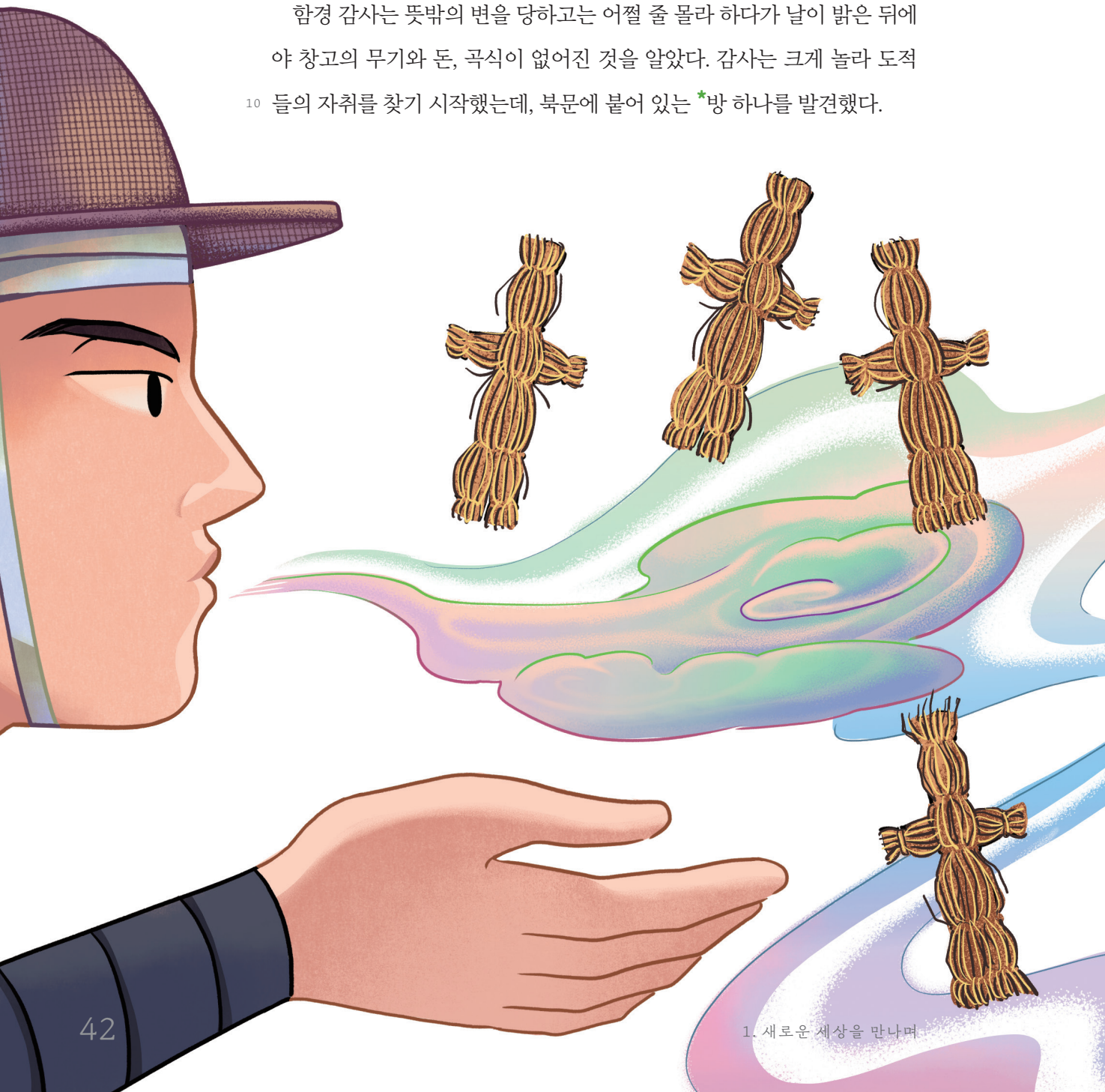
* **관상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등을 판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추호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탐관오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길동은 부하들에게 계책을 일러 주고 각자 따로 움직여서 아무 날 밤에 아무 곳에서 만나기로 기약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이 되자 성의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크게 놀란 함경 감사는 불을 끄라 지시했고, 백성은 모두 나와 불길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길동의 무리 수백 명이 순식간에 성안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창고를 열고 돈과 곡식, 무기를 훔쳐 북문으로 달아났다. 이들이 들이닥친 성안은 물 끓듯이 요란했다.

함경 감사는 뜻밖의 변을 당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날이 밝은 뒤에야 창고의 무기와 돈, 곡식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감사는 크게 놀라 도적들의 자취를 찾기 시작했는데, 북문에 붙어 있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 날 돈과 곡식을 훔쳐 간 자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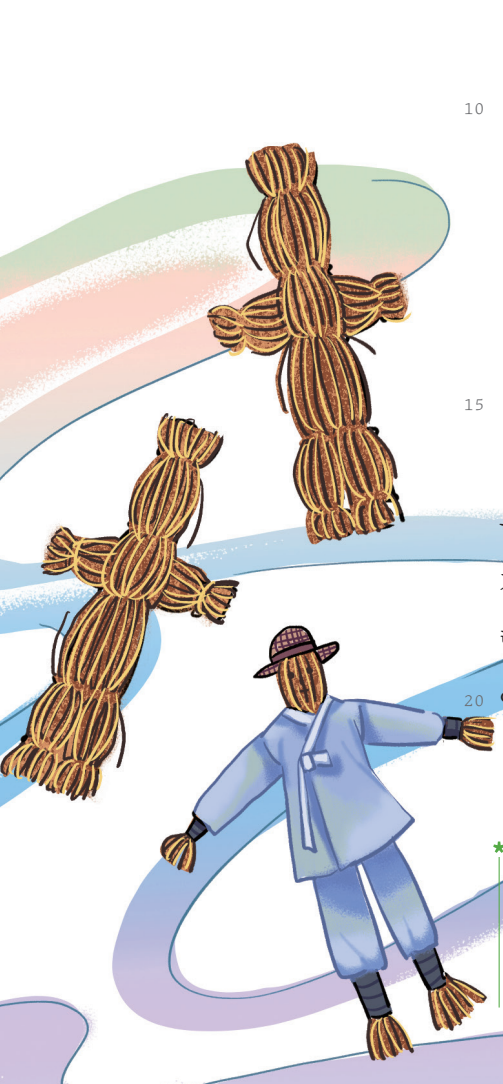
함경 감사는 홍길동이 *감영을 털었음을 깨닫고 군사를 모아 뒤를 쫓기 시작했다.

길동은 날이 샐 즈음에 부하들과 함께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소굴로 돌아왔다. 함경 감영의 돈과 곡식을 많이 훔쳤으니, 행여 길에서 잡힐 수도 있다고 염려해서였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아 놓고 의논했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의 재물을 빼앗고, 함경 감영의 돈과 곡식을 훔쳐 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게다가 감영 곳곳에 내 이름을 붙이고는 찾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잡힐 듯하다. 이에 대비책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내 재주를 지켜보아라."

말을 마치자마자 길동은 풀로 허수아비 일곱을 만들더니, 주문을 외우고 혼백을 불어 넣었다. 그러자 일곱 명의 길동이 새로 생겨나서 한곳에 모이더니 한꺼번에 뽐내며 크게 소리를 치고 야단스럽게 지껄이는 것이 아닌가. 부하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 **방**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
행수 한 무리의 우두머리.
감영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둔갑법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술법.
축지법 도술로 땅을 축소하여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여덟 길동이 조선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서 각각 부하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다니니, 그중 어디에 진짜 길동이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길동들은 전국을 다니며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을 부렸다. 하룻밤 만에 각 읍 창고의 곡식을 *종적도 없이 가져가기도 하고, 서울로 올려 보내는 *봉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도 했다.

팔도 각 읍 백성이 낮에는 마음대로 길에 나다니지 못했고, 밤에는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

* **종적**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봉물 예전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던 물품.

[중략 부분 줄거리] 팔도에서 도적 홍길동을 잡아 달라는 *장계가 계속 올라온다. 임금이 놀라 좌우 포도청에 군사를 내어 잡으라 하니, 우포도대장 이흡이 자신이 홍길동을 잡겠다고 나선다. 임금은 이흡에게 길동을 잡으라고 명한다. 그러나 이흡은 도리어 길동에게 사로잡혀 놀림만 당한다. 임금은 홍길동을 잡지 못해 고민에 빠진다.

임금은 할 수 없이 삼정승과 육판서를 모아 놓고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공문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모두 팔도에서 홍길동이 난리를 일으켜 고을을 어지럽힌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이 문서를 차례대로 읽고 크게 근심해 주위를 돌아보고 물었다.

"홍길동은 아마도 사람이 아닌가 보오. 이는 귀신이 일으키는 *폐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소.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일의 원인을 짐작하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한 신하가 나아가 말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 판서 홍 아무개의 *서자요, 병조 좌랑 홍인형의 *서제입니다. 그 아비와 형을 잡아 와서 직접 *문초하시면 자연히 일의 연유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이런 사실을 어찌 이제야 알린단 말인가."

임금은 곧바로 홍 판서와 인형을 잡아 와 의금부에 가두고, 인형부터 불러들여 직접 문초했다. 그는 *진노해 *서안을 치며 인형을 꾸짖었다.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제이더구나. 어찌 동생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어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켰느냐? 만일 동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간에 쌓은 너희 부자의 공적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빨리 길동을 잡아들여 나라에 벌어진 큰 *변고를 없애도록 하라!"

임금의 명을 받은 인형은 *황공하여 관을 벗고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에게 천한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보전하려고 도망간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지요. 늙은 아버지께서는 길동의 일 때문에 신병을 얻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길동이 흉악한 일까지 저질러 *성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저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자비로운

인형이 길동을 잡으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

*은택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제 아비의 죄를 용서하셔서 집에 돌아가 병을 다스리게만 해 주신다면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씻을까 하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임금은 즉시 홍 판서를 *사면하고, 인형에게는 경상 감사 직위를 내려 길동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감사라는 지위 없이는 길동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일 년의 시간을 주겠으니 그 안에 반드시 잡아들이라."

인형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여러 번 절하고 물러나 바로 서울을 떠났다. 그날 경상 감영에 *도임한 인형은 각 읍에 길동을 달래는 내용의 방을 붙였다.

>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오륜이 으뜸이다.
> 그리고 오륜이 있기에 인의예지가 분명하거늘,
> 너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임금과 부모의 명을 거역해
>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면서 어찌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겠는가.
> 내 아우 길동이라면 이런 이치를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 사로잡히라. 아버지께서는 너로 인해 병이 뼛속까지 깊이 드셨다.
> 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 성상께서도 크게 근심하셔서
> 나를 특별히 경상 감사에 *제수해 너를 잡아들이라 하신다.
> 만일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쌓은 청덕이
>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 바라나니 아우 길동은 이를 생각하여 당장 자수하여라.
> 그러면 너의 죄도 덜어질 것이오, 우리 가문도 보존될 것이다.
>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 만 번 생각해서 빨리 자수하는 것이 좋으리라.

* **장계**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서자 양반의 첩이 낳은 아들. 본처가 낳은 아들은 '적자'라고 한다.
서제 아버지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우.
문초하다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하다.
진노하다 성을 내며 노여워하다.
* **서안** 예전에, 책을 얹던 책상.
환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변고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
황공하다 위엄이나 지위 등에 눌리어 두렵다.
성상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은택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면하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다.
도임하다 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하다.
제수하다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다.

감사는 이 방을 각 읍에 붙이고, 공무는 전혀 보지 않은 채 길동이 자수하기만을 기다렸다.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감영 문밖에 와서 감사를 뵙고 싶다고 청했다. 감사가 들어오게 하자 소년이 마루 위에 올라와 인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애타게 기다리던 길동이 아닌가. 감사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며 길동의 손을 잡고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네가 집을 나선 뒤로 생사조차 알지 못하자 아버지 병환이 갈수록 깊어져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너는 불효만 일삼고 나라에 큰 근심을 끼치는구나. 대체 무슨 마음으로 충성스럽지도, 효성스럽지도 못하게 살면서 도적까지 되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죄를 짓느냐? 성상께서는 이미 진노하시어 너를 반드시 잡아들이라 하시니, 피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바로 서울로 올라가 임금의 명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인형은 목이 메어 말을 간신히 마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길동은 형의 말에 느끼는 바가 있는지 머리를 숙이고 말을 받았다.

"천한 동생이 여기에 찾아온 것은 아버지와 형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애초에 천한 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형이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던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일을 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서 천한 저를 묶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길동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인형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길동이 자수한 *내막을 공문으로 작성했다. 그러곤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는 *차꼬를 채워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에 태웠다.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이 길동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밤낮을 쉬지 않고 평소의 두 배 거리를 이동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각 읍을 지날 때마다 길동의 재주를 들은 백성들이 그가 잡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이 메워지도록 모여 구경을 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 팔도에서 잡혀 온 길동이 여럿 모인 것이 아닌가. 조정과 서울 사람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임금도 놀라

서 조정의 신하들을 다 모으고, *국문에 나섰다. 하지만 여덟 명의 길동은 저희끼리 싸우기 바빴다.

"네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누구도 어느 쪽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아버지인 홍 판서를 불렀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으니, 저 여덟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임금의 명령에 홍 판서가 황공해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고는 죄를 청하며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는 여덟 길동을 돌아보며 꾸짖었다.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그 아래 아비가 있는데도, 네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홍 판서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 기절했다. 임금이 크게 놀라 대궐의 의원을 불러다가 치료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여덟 길동은 모두 이를 보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 속에서 환약 하나씩을 꺼내 홍 판서의 입에 넣었다. 반나절 후에 홍 판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여덟 길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 **내막**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차꼬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기구. 두 개의 기다란 나무토막을 맞대어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다.
국문 조선 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임시 관아에서 몽둥이를 가하여 중죄인을 신문하던 일.
혈점 살갗에 피가 맺혀 생긴 점.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
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차도 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정도.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제가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겠사옵니까. 하지만 저는 원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사옵니다. 이것이 평생 한으로 맺혀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범하는 일은 추호도 없었고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십 년이 지나면 조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 엎드려 빌건대 성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잡으라는 명령을 거두옵소서!"

여덟 길동은 이렇게 말하고는 한꺼번에 넘어졌는데, 모두 풀로 만든 허수아비로 변해 버렸다. 임금이 더욱 놀라 진짜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팔도에 다시 내려보냈다.

길동은 허수아비를 없애고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사대문에 직접 방을 붙였다.



*소신 홍길동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나,
다만 *병조 판서 벼슬을
내리신다면
순순히 잡히겠습니다.

길동이 병조 판서 벼슬을 내린다면 순순히 잡히겠다고 한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



* **소신**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병조 판서 조선 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임금이 그 글을 보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니,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뢰었다.

"도적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병조 판서에 제수한다는 것은 이웃 나라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이 옳다고 여긴 임금은 경상 감사에게 길동을 잡아 오라고 재촉할 뿐이었다. 경상 감사 인형은 왕의 엄한 *교지를 받고는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오더니 인형에게 절하고는 말을 꺼냈다.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진짜 길동이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저를 바로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길동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철없는 녀석아, 아버지와 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너를 보며 형으로서 내 마음이 어찌 애달프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자진해서 잡혀가려고 하니 기특한 일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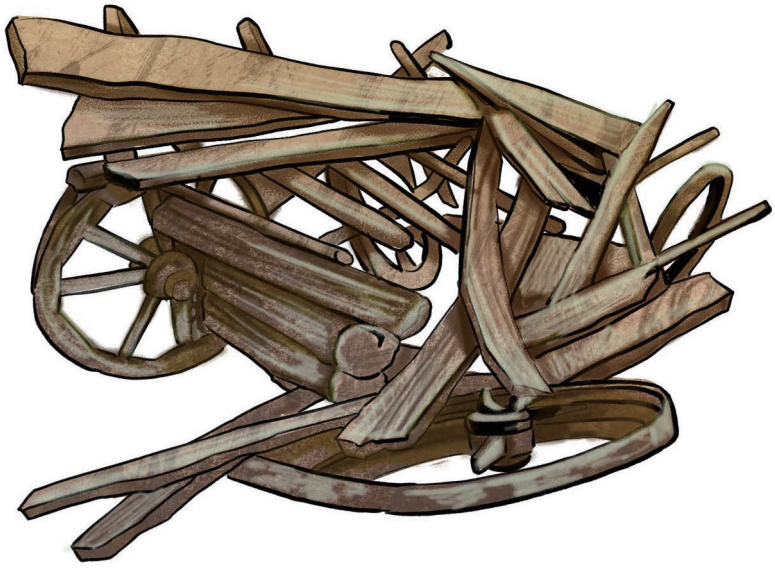
인형이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살펴보니 과연 혈점이 있었다. 그는 즉시 길동의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죄인 호송 수레에 태웠다. 그러고는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길동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풍우같이 몰아갔다. 이 와중에도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라 대궐 문에 이르자 길동이 한 번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져 버렸다. 길동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공중으로 올라가 가볍게 날듯이 구름에 묻혀 사라졌다. 장교와 여러 군사는 어이없었지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을 따름이었다. 할 수 없이 임금께 이 사실을 알리니 임금은 보고를 듣고 크게 근심했다.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며 아뢰었다.

"길동의 소원이 병조 판서인데 한 번 지내고 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소원을 풀어 주면 스스로 성상의 은혜에 감사하러 올 것이니, 그



때를 틈타 길동을 사로잡는 것이 어떨까 하나이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즉시 홍길동을 병조 판서에 임명한다는 방을 사대문에 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길동은 *사모관대에 *서띠를 매어 병조 판서 복색을 하고는 높은 수레에 의젓하게 앉아 큰길로 버젓이 들어오며 외쳤다.

병조 판서 복색을 하고 대궐로 들어갈 때 길동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추측해 보자.

"홍 판서 *사은하러 온다!"

병조의 관리들이 길동을 맞이해 대궐로 들어가니, 신하들은 의논을 *분분히 하다 약속을 정했다.

"큰 칼과 도끼를 쓰는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길동이 사은하고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여라."

* **교지** 조선 시대에, 임금이 사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명령이 담긴 문서.
결박하다 몸이나 손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이어 묶다.
철통같이 준비나 대책이 튼튼하고 치밀하여 조금도 허점이 없이.
사모관대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와 평상시 조정에 나아갈 때 입던 제복.
서띠 조선 시대에, 일품의 벼슬아치가 허리에 두르던 띠.
사은하다 받은 은혜에 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하다.
분분히 떠들썩하고 뒤숭숭하게.
매복시키다 상대편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게 하다.

한편 길동은 대궐에 들어가 병조 판서를 제수받고 임금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소신의 죄악이 더없이 무거운데, 도리어 전하의 은혜를 입어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옵니다. 하지만 전하를 모실 길이 없어 이제 영원히 작별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말을 마친 길동은 몸을 공중에 솟구치더니 구름에 싸여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 임금이 이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드물 것이다. 스스로 조선을 떠난다고 했으니 다시는 폐를 끼칠 일이 없으리라. 수상쩍기는 하나 대장부의 통쾌한 결정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임금은 홍길동의 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팔도에 보내고, 그 뒤로 길동 잡는 일을 멈추었다.

[뒷부분 줄거리] 활빈당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난 길동은 율도국을 정벌하고 그곳의 왕이 된다. 길동이 왕이 된 율도국은 *태평성대를 누린다. 이후 길동은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 만에 홀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다.

—『홍길동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 **고금**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 **허균(1569~1618)**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 작품으로 『교산시화』, 『학산초담』, 『성소부부고』 등이 있다.

첫인상 나누기

나에게 홍길동이 지닌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그 까닭과 함께 말해 보자.



홍길동의 능력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능력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능력

먼 거리를 순식간에 빠르게 가는 능력

자신의 모습을 한 여러 개의 분신을 만드는 능력

내가 활용하고 싶은 능력

그 까닭

내가 주고 싶은 도움

1. 다음은 『홍길동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양반인 아버지 홍 판서와 노비인 어머니 춘섬 사이에서 길동이 _____(으)로 태어나다.



천한 출생으로 _____ 하지 못하고, 종들에게도 천대받아 서러워하다.



홍 판서의 첩 _____이/가 길동을 없애기 위해 자객을 보내고, 습격을 피한 길동이 집을 떠나다.



집을 나간 길동이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무리의 이름을 _____(이)라고 짓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_____을/를 구제하다.



여덟 길동이 팔도에서 난리를 일으키자 임금이 길동을 잡아들이려고 하나 잡지 못하다.



_____ 벼슬을 내린다면 순순히 잡히겠다고 길동이 직접 방을 붙이다.



임금이 벼슬을 내리자 길동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 _____의 왕이 되다.

2.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보자.

① **가~아는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장면들이다. 가~아를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묶고, 그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자.**

신분 제도가 있었고, 적자와 서자 간의 차별이 있었다.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사회였다.	충효를 중시하는 유교 중심의 사회였다.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가 있었다.
가, ~~~~~	~~~~~, 아	~~~~~, ~~~~~	~~~~~, ~~~~~

'입신양명'이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어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을 말한다.

가



아들을 사랑하는 홍 판서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지만 길동의 근본이 천한 출생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홍 판서는 길동이 호부호형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 하게 했다.

나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나 맹자를 본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병법을 익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껴 차고 동서를 정벌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대장부의 통쾌한 일이리라."

다



"재상가에서 태어난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편협한 마음을 먹어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라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 놓고 의논했다. "함경 감사가 탐관오리 짓을 하며 기름을 짜듯 착취를 일삼으니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더 이상 그대로 두고 지켜볼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나의 지휘대로 움직여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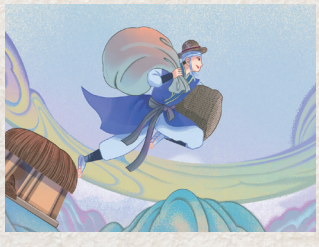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오륜이 으뜸이다. 그리고 오륜이 있기에 인의예지가 분명하거늘, 너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임금과 부모의 명을 거역해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면서 어찌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겠는가."

바



"네가 집을 나선 뒤로 생사조차 알지 못하자 아버지 병환이 갈수록 깊어져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너는 불효만 일삼고 나라에 큰 근심을 끼치는구나. 대체 무슨 마음으로 충성스럽지도, 효성스럽지도 못하게 살면서 도적까지 되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죄를 짓느냐?"

사



"백성을 범하는 일은 추호도 없었고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아



"소신 홍길동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나, 다만 병조 판서 벼슬을 내리신다면 순순히 잡히겠습니다."

활동지

사회·문화적 상황이란 특정한 시대의 생활 방식, 가치관, 규범, 제도 등 그 시대의 사회·문화가 보여 주는 전반적인 상황과 모습을 말한다.

2 **①번 활동의 결과를 모둠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이야기해 보자.**

3. 2번 활동에서 살펴본 사회·문화적 상황과 이 작품을 쓴 작가 허균의 주요 행적을 바탕으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파악해 보자.

허균의 주요 행적

조선 중기 문신 허엽의 적자로 태어남.

㉠ 서자 출신 '이달'에게 시를 배우며 인생관과 문학관에 영향을 받음.

㉡ 서자 출신 문인들과 친분이 두터웠음.

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풍류를 즐기는 등 행동이 자유분방하여 관직에서 여러 번 쫓겨남.

㉢ 서자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재론」을 씀.

㉣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패한 지배층을 비판한 「호민론」을 씀.

광해군 때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됨.

* **풍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등용 인재를 뽑아서 씀.
역모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① 허균이 이 작품을 쓰는 데 ㉠~㉣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말해 보자.

② 허균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4. 내가 홍길동이 살던 시대의 왕이 된다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써 보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적어 보자.

내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 방법



1. 모둠별로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난 작품을 찾아보자.

제목	
유형	☐ 시 ☐ 소설 ☐ 영화 ☐ 드라마 ☐ 노래 ☐ 만화 ☐ 기타: _____
주요 내용	

2. 우리 모둠이 찾은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보자.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난 구절이나 장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3. 1~2번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에서 감상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4. 1~3번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이 감상한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담은 한 줄 평을 써 보자.

제목 :

“ ”

작품 제목과 함께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난 구절이나 장면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이 감상한 작품에 관한 한 줄 평을 써 본다.

5. 1~4번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둠이 찾은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그리고 친구들이 소개한 작품 가운데 사회·문화적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그 까닭과 함께 써 보자.

모둠명	작품 제목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작품

그 까닭

소단원 정리하기

1 사회·문화적 상황

사회·문화적 상황이란 특정한 시대의 생활 방식, 가치관, 규범, 제도 등 그 시대의 사회·문화가 보여 주는 전반적인 상황과 모습을 말한다.

2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문학 작품 감상하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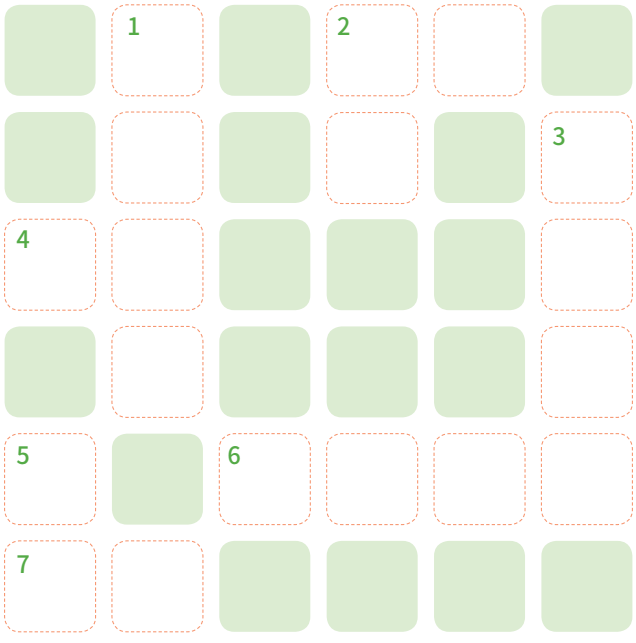


다음 항목에 따라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점검 항목	평가	안내 쪽수
1.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 ☺	58~59쪽
2.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파악할 수 있다.	☹ 😐 ☺	60~61쪽
3. 다양한 작품을 찾아 그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 😐 ☺	62~65쪽

어휘력 높이기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 상자에 써 보자.



가로 열쇠

2.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어찌 동생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어 국가에 큰 ○○을/를 일으켰느냐?”
4.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소자 더는 설움을 참지 못해 어머니 ○○을/를 떠나려 합니다.”
6.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함경 감사가 ○○○○ 짓을 하며 기름을 짜듯 착취를 일삼으니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7.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 “길동은 날이 샐 즈음에 부하들과 함께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으)로 돌아왔다.”

세로 열쇠

1.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이나 생각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 “그는 고집이 세고 ○○○○.”
2.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게 빚은 약. “여덟 길동은 주머니 속에서 ○○ 하나씩을 꺼내 홍 판서의 입에 넣었다.”
3.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사람. “길동은 집을 나가 도적 무리의 ○○○○이/가 되었다.”
5. 사람이 잠을 자는 곳.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 ○○에 가서 울면서 아뢰었다.”

옛이야기 다시 쓰기

비판적·창의적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옛이야기를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바꾸어 써 보자.

1. 모둠 친구들과 함께 바꾸어 쓸 옛이야기를 골라 보자. 그리고 그 옛이야기에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바꾸어 쓸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

예

☑ 의좋은 형제
☐ 견우와 직녀
☐ 도깨비방망이
☐ 별주부전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기타:

→ 형과 아우 둘 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살았고,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더욱 돈독해졌다.

→ 형제가 자신의 볏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해 보았다.

☐ 의좋은 형제
☐ 견우와 직녀
☐ 도깨비방망이
☐ 별주부전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기타:

→

→

→

옛이야기에 반영된 과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고, 바꾸어 쓸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

2. 다음 안내에 따라 이야기를 이어 쓸 종이책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

종이책
만들기 영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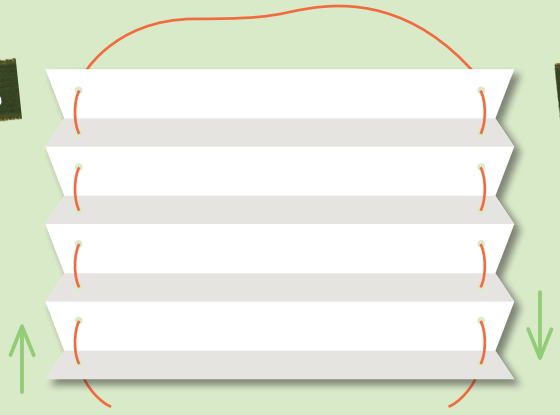
8절지 크기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가며 8등분으로 접는다.

2



접은 종이의 양쪽 끝에 구멍을 뚫는다.

3



종이의 한쪽 구멍에 줄을 넣고, 넣은 줄을 반대 방향의 다른 쪽 구멍에 넣는다.

4



양쪽 구멍의 줄을 각각 매듭짓고, 접힌 면들을 하나로 모아 책 모양을 만든다.

3. 모둠 친구들과 2번 활동에서 만든 종이책에 이야기를 이어 써 보자. 그리고 표지를 꾸며 종이책을 완성해 보자.

작성 방법

- 접힌 종이책의 첫 번째 칸은 비워 놓고, 두 번째 칸부터 '옛이야기 다시 쓰기'를 시작한다.
- 두 번째 칸부터 한 사람이 한 칸씩 이야기를 쓰고, 다음 사람이 다음 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쓴다. 이야기를 쓰기 전에 친구들이 앞서 쓴 이야기를 먼저 읽어 본다.
- 이야기를 완성한 다음에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와 어울리는 새로운 제목을 지어 접힌 종이책의 첫 번째 칸을 표지로 꾸민다.



1번 활동에서 모둠 친구들과 바꾸어 쓰기로 한 내용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 간다. 친구가 먼저 쓴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읽고, 친구가 쓴 이야기와 내가 쓸 이야기가 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한다.

4. 모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종이책을 우리 반 게시판에 게시해 보자. 그리고 다른 모둠에서 바꾸어 쓴 이야기를 읽고, 옛이야기에 새롭게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 단원에서는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나의 읽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골라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한층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다채롭게